

함열여자고등학교

보건간호과



이소연

지방보건서기보



진안군 보건소

성수면 보건지소

익산 함열여자고등학교는 1967년부터 '비전과 열정' 정신을 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학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졸업과 동시에 지방보건서기보로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소연 선배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열여자고등학교 보건간호과를 졸업한 이소연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진안군 성수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보건지소는 시골이나 도서 지역 등 보건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분들께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주로 예방접종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보건지소 의약품 등을 관리하고 있어요.

Q. 함열여고 보건간호과에 진학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장래 희망을 정하지 못했어요. 딱히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다고 봐야겠지요? 고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다니던 여산중학교로 함열여고 선생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당시 학교 홍보를 통해 '보건간호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가족 중 이모와 고모께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간호 업무를 직업으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Q. 특성화 과정과 일반 학급이 같이 있는 학교의 특징은?

보건간호과도 1학년 때는 일반 학급과 비슷한 수업을 들어요. 기초 학력을 다지는 시기에 국영수를 비롯한 각 과목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부터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의학 용어나 임상 상황의 대처를 배우고, 3학년 때는 현장실습과 진로별 교육이 이뤄져요. 저의 경우 지방보건서기보를 준비했었고, 이때 '생물', '공중보건', '환경보건' 과목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특히 생물은 과목 선생님이 학교에 상주하시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요.

“
나에게 고등학교란
한 줄기의 빛
”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Q. 중간에 진로를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의무부서관'을 생각했어요. 제 고향이자 학교를 다닌 익산에는 부서관 학교가 있어 자연스럽게 진로를 그쪽으로 잡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의무부서관은 대학 진학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특성화고의 장점을 살려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보건직 공무원'의 길을 알려주셨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 병원 실습을 나감과 동시에 보건직 공무원의 길을 고려하며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직장을 잡고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Q. 학교생활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는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어요. 당시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였기에 저희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예방접종 파트를 맡아 환자들과 접촉하며 문진표를 작성하고, 백신을 준비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일이라 생각해보니 적성에도 맞았고, 업무에 흥미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혈관을 잘 못 찾고, 바늘을 무서워하기도 했는데, 실습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경험이 기억에 남아요.



보건간호과, 어느 학교에 있을까?

함열여자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글로벌학산고등학교

보건간호과, 제과제빵과, 글로벌외식조리과,
헤어미용과, 글로벌미디어콘텐츠과

원광보건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보건행정과, 반려동물과

한국한방고등학교

보건간호과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바로 취업을 해도 좋고, 대학에서 학문을 갈고닦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직렬을 공부하게 되니까 만족감도 크고 학업에 동기가 부여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시장에 나갔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는 점도 큰 장점이지요. 무엇보다도 특성화고는 졸업 후 자신의 꿈을 바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선배가 말한다!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어

특성화고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취업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 대학에 진학한다면 전공을 먼저 배웠으니 적응하기 쉬운 거야. 또 고교 3년간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서로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보건간호과를 비롯한 특성화고는 실습이 많아. 물론 연필을 잡고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업무를 체험하면서 능력을 키우고 싶은 친구들은 지원을 추천해.

나, 이런 상도 받았어

교과성적우수상(총 9개 과목)
기본생활우수상
3년 개근상
학교장 모범상

선배의 자격증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